

2026년 2분기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BSI)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창원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창원지역 소재 제조기업의 체감경기 수준에 대한 이해와 창원지역 기업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조사하여 창원지역의 기업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기업에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기업지원 기관·단체에는 시의적절한 지원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방법 및 시점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시점 : 2026. 4월 기준
- 분석대상 : 119개 응답 업체

2 분석방법

- 기업경기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는 전분기 실적과 전망에 대한 응답 업체 수를 바탕으로 아래 공식으로 지수화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 업체 수} - \text{부정적인 응답 업체 수})}{\text{전체 응답 업체 수}} \times 100 + 100$$

- BSI 100 : 체감경기 '호전'과 '악화'로 응답한 업체 수가 같음
- BSI 100 이상 : 체감경기 '호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음
- BSI 100 미만 : 체감경기 '악화'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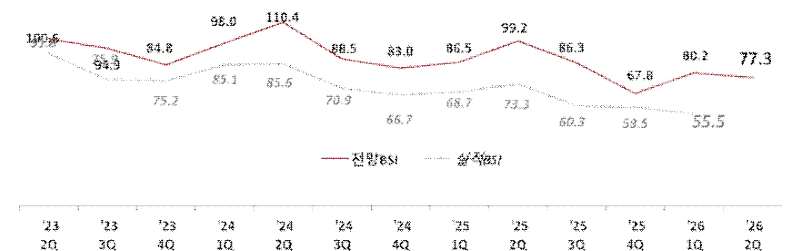
II

2026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 2026년 2분기 전망 BSI '77.3', 1분기 실적 BSI '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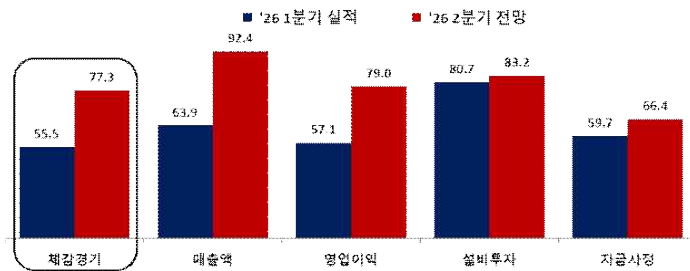
-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국제 에너지 가격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음.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자동차·부품(40.9), 기계·장비(67.9), 전기·전자(76.5), 철강금속(91.7)은 일제히 기준치를 하회하였음. 반면 글로벌 방산 수주 확대 기대감에 힘입은 기타운송장비(150.0)만이 유일하게 기준치를 크게 상회함.
-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76.7)이 중소기업(92.1)보다 오히려 낮은 전망을 보이고 있음.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직접적 노출도가 높은 대·중견기업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를 더욱 민감하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매출형태별로 살펴보면 수출기업(100.2)은 환차익이 일부 비용 상승을 상쇄하며 기준치에 부합하고 있으나, 내수기업(69.7)은 원화 약세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에너지 수입 단가 상승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데다 내수 소비 회복마저 더딘 상황이어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항목별 전망 BSI : 매출액(92.4), 설비투자(83.2), 영업이익(79.0), 자금사정(66.4),
- 업종별 전망 BSI : 기타운송장비(150.0), 철강금속(91.7) 전기·전자(76.5), 기계·장비(67.9), 자동차·부품(40.9), 기타(85.2)
- 특성별 전망 BSI : 대·중견기업(76.7), 중소기업(92.1) 수출기업(100.2), 내수기업(69.7)

창원지역 제조업 전망 및 실적 체감경기(BS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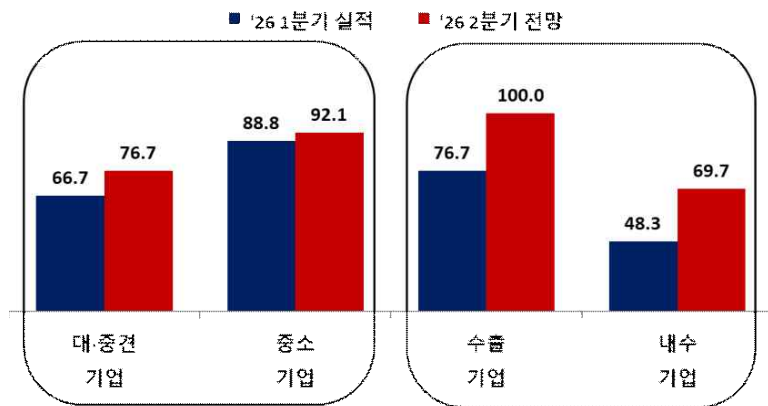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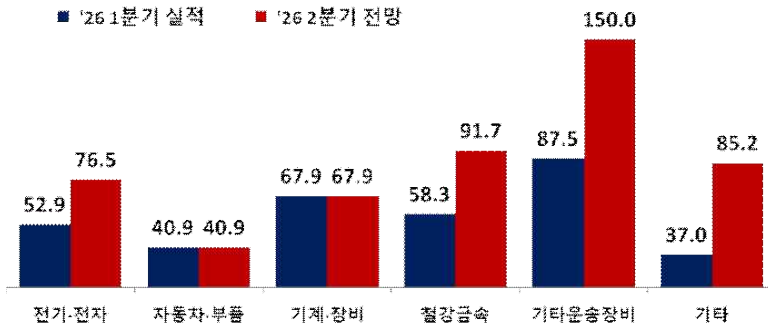


※ 체감경기 지수는 절대적인 실적이 아닌, 앞선 분기와 비교해 상대적 체감 정도를 의미하므로 지수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항목별 실적 및 전망 BSI



업종별 실적 및 전망 BSI



●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응답 업체의 40.3%가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을 꼽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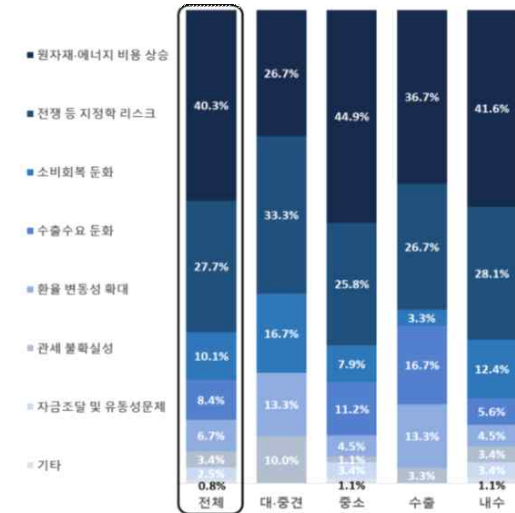
- 이어서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27.7%), '소비회복 둔화'(10.1%), '수출수요 둔화'(8.4%), '환율 변동성 확대'(6.7%), '관세 불확실성'(3.4%), '자금조달 및 유동성 문제'(2.5%) 순으로 나타나,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비용과 지정학 리스크가 전체 응답의 약 68%를 차지하며 창원지역 제조업체의 핵심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중소기업은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응답이 4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대·중견기업은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33.3%)를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아 중소기업과 체감 리스크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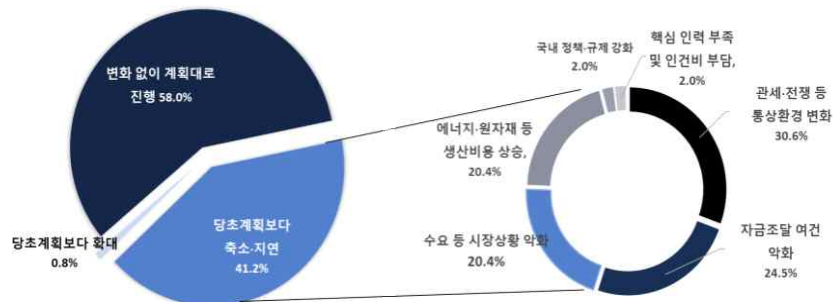
- 매출형태별로는 수출기업(36.7%)과 내수기업(41.6%) 모두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으나, 내수기업이 수입 원가 부담이 내수 중심 기업에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



- 현재 시점에서 지난해 말 또는 연초에 계획한 상반기 투자계획과 비교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58.0%가 '변화 없이 계획대로 진행'을 꼽았음.
- 또한 '당초 계획보다 축소 또는 지연'이라는 응답이 41.2%에 달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유지 또는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0.8%만 '당초계획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응답하였음.
-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 또는 지연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로는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30.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이어서 '자금조달 여건 악화'(24.5%), '수요 등 시장상황 악화'(20.4%), '에너지·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20.4%), '국내 정책·규제 강화'(2.0%), '핵심 인력 부족 및 인건비 부담, 2.0%)', '관세·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30.6%) 순으로 나타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적 요인이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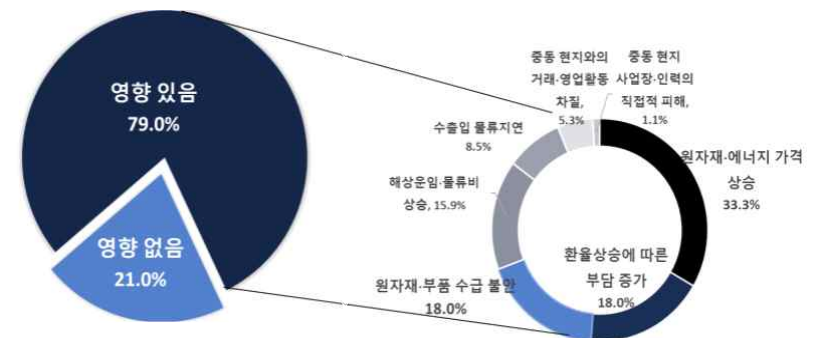
지난해 말 또는 연초 계획 대비한 투자계획 및 축소·지연 사유



III 중등 관련 지정학 리스크 영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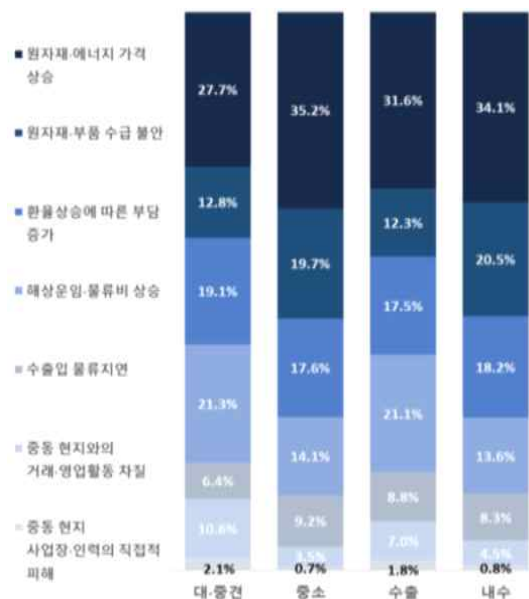
-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미·이스라엘 이란 공습)와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경영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 '영향 있음'에 79.0%가 응답
-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 가운데, 최근 중등사태로 인해 겪고 있는 주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33.3%)을 가장 많이 꼽았음.
- 이어서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18.0%), '원자재·부품 수급 불안'(18.0%), '해상운임·물류비 상승'(15.9%), '수출입 물류지연'(8.5%), '중등 현지와의 거래·영업활동 차질'(5.3%), '중등 현지 사업장·인력의 직접적 피해'(1.1%) 순으로 나타나, 원자재 비용과 환율 부담이 전체 응답의 과반을 차지하며 기업 경영의 핵심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원·달러 환율 변동성 변동성과 중등사태로 인해 경영에 미치는 영향



- 규모별(대·중견로, 매출형태별 모두 중동사태로 인해 겪고 있는 주요 영향을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음.
- 대·중견기업은 그 다음으로 '수출입 물류지연'(21.3%)과 '해상운임·물류비 상승'(19.1%)을 꼽아 물류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중소기업은 '원자재·부품 수급 불안'(19.7%)과 '환율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17.6%)를 주된 영향으로 응답하였음.
- 매출형태별로는 수출기업이 '수출입 물류지연'(21.1%)을, 내수기업은 '원자재·부품 수급 불안'(20.5%)을 두 번째로 큰 영향으로 꼽아, 수출기업은 물류 차질을, 내수기업은 원자재 조달 불안을 보다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중동사태로 미치는 주요 영향(규모별, 매출형태별)



-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 '일부 피해 예상'(55.5%)과 '많은 피해 예상'(24.4%)을 합산하면 약 80%가 피해를 예상하였음.
- 반면 '현재로서 판단 불가'(13.4%), '피해 없음'(6.7%) 순으로 응답하여, 대다수 기업이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사태 장기화 시 가장 크게 예상되는 피해로는 '원자재·에너지 비용 상승'(14.6%)이 가장 높았음.
- 이어서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증가'(12.6%), '운임 상승·항로변경 등 물류 차질'(9.6%), '수출 감소 등 해외 거래 위축'(6.9%), '생산 차질 및 납기 지연'(5.3%), '중동지역 사업 및 투자 차질'(4.2%) 순으로 나타남. 원자재·환율로 인한 비용 상승과 물류 차질이 주된 우려 요인으로, 현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주요 영향이 사태 장기화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중동사태 장기화 경우 피해 발생 예상 및 가장 크게 예상되는 피해

